

2024학년도 2학기 임시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서기록

일시 2024. 12. 13. (금) 18:00

장소 경영관 33B101

▼ 개회

총학생회장: 18시 5분이 되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4학년도 2학기 임시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원편의 전학대회 자료집 QR을 검색해 자료집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즉 '전학대회'는 학생사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대표자들이 모여 학생자치의 기틀을 다지는 자리입니다. 본회는 학기당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개회를 하였으나 현 시국을 고려하였을 때, 또 앞으로도 저희가 또 맞닥뜨려야 하는 학내 의제들과 관련하여 대의원들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긴급하게 소집하였습니다. 시험 기간에 임시 전학대회를 소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학우분이 오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회의 진행 순서입니다. 오늘 전학대회는 정족수 확인, 개회 선언, 의장 및 서기단 소개, 총학생회칙 및 전학대회 운영세칙 안내, 보고 안건, 인준 안건, 논의 안건, 건의 안건 및 폐회 선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 정족수 확인

총학생회장: 다음으로 출결 확인이 있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정족수 확인을 위해 대의원 출석을 부르겠습니다. 호명되시면 대답과 함께 손을 높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름 석 자만 불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대리인으로 참석하신 경우에는 위임자의 이름이 호명되면 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출석 부르겠습니다.

(출결 확인)

총학생회장: 저희가 정족수 확인을 위해 출결을 해야 하는데요, 조금만 더 크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결 확인)

부학생회장: 혹시 출석하신 단위 중 출석하셨는데 호명 안 되신 단위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학생회장: 비상대책위원회로 운영되는 단위를 제외한, 의결권을 가진 대의원 모두 호명하였습니다. 총 재적 의원 131명 중 참석 의원 96명으로 정족수 66명을 채워 18시 16분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먼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되기에, 출석의원이 정족수 66명보다 적어지는 순간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자동으로 휴회됩니다. 부디 출석해 주신 대의원분께서는 회의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회의장을 나가시더라도, 나눠드렸던 비표는 반드시 반납해 주셔야 하며, 완전히 퇴장하시는 경우에는 비표와 명찰을 모두 반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의장단에서 의결 사안을 준비하지는 않았으나, 혹시라도 의결할 사항이 생길 경우에 대해 간단하게 공지드리겠습니다. 의결은 비표를 들어서 의결을 표해주시면 되고, 의결 후에 양 끝으로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을 희망하실 경우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 주시고, 소속과 성명을 꼭 밝힌 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의장 및 서기단 소개

총학생회장: 다음으로 의장단 및 서기단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2024학년도 2학기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장을 맡은 제57대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생회장 글로벌

경제학과 20학번 총학생회장입니다. 서기단으로 인사운영국장 내정자 심리학과 22학번 전준민 학우, 학사정책국장 내정자 경영학과 22학번 오은형 학우 소개하겠습니다.

▼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칙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운영세칙

총학생회장: 총학생회칙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운영세칙 소개입니다. 자료집 20쪽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21쪽의 전학대회 관련 회칙 조항만 간단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의는 제55조에 제3항 제2호에 의거하여 소집된 임시회의이며, 지금부터 2일 전인 12월 11일에 소집을 공고하였습니다. 기타 총학생회칙에 대한 부분은 한 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료집 47쪽에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운영세칙을 소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안건 상정 등이 이루어질 경우, 본 운영세칙을 바탕으로 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학대회 운영세칙도 일부분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회의의 용어를 확인하겠습니다. 회기, 개회에서 폐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회, 회기 처음 시작을 말한다. 폐회, 회기의 끝을 말한다. 휴회, 한 회기 중 회의를 며칠 쉬는 것을 말한다. 휴게, 회의 중 잠시 쉬는 것을 말한다. 정회, 회의 중 다소 길게 쉬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대의원들은 정회 선포 시 회의 외의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논의 안건 상정을 희망하신다면 제4조, 의안 채택 방법 및 회순 통과 조항에 의거해 절차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보고 안건

총학생회장: 다음으로 보고안건입니다. 보고안건은 부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학우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부총학생회장: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제57대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부총학생회장 디자인학과 20학번 부총학생회장입니다. 오늘 진행되는 임시 제1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아니기에 총학생회 운영과 사업 보고, 후원금 및 결산안 보고는 추후 25학년도 1학기에 있을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보고드릴 예정이며, 이번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는 비상계엄령 선포에 따른 총학생회 대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오늘 전학대회 소집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가가 혼란해짐에 따라 총학생회 측에서는 중앙운영위원들과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 학우들을 대변하는 활동과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사태가 진작되지 않고 있음에 저희 총학생회 측에서는 이 이상으로 성균관대학교 학생사회가 이와 관련하여 취해야 할 입장은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어떠한 방향이 성균관대학교 학생사회에 있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더 많은 학우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전학대회를 소집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전학대회에서는 당장 무엇인가를 반드시 의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 상황 혹은 후속 조치에 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함이니, 후에 있을 기타 안건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이어 나갈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상계엄령 선포에 따른 총학생회 대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 중 용어가 생소하실 학우분들을 위해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중앙운영위원회란,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의 상설 의결 기구입니다. 이는 총학생회장단과 단과대/학부 및 독립단위 학생회장단, 동아리연합회 회장단과 같은 독립기구장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후 말씀드리는 연석 중앙운영위원회는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와 자연과학캠퍼스의 중앙운영위원회 양 캠퍼스의 중앙운영위원회를 이르는 말입니다.

지난 12월 3일 밤 10시 23분경 긴급 브리핑을 연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과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에 3일 자정 연석 총학생회장단에서는 해당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한바, 연석 총학생회장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4일 01시 01분경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는 완벽한 계엄령 해제가 아니었기에,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 학우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드리지 않도록, 그리고 학우 여러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논의하며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았습니다.

4일 새벽 05시 03분경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의 해제가 의결되며 계엄령이 완전히 해제되었습니다. 비록 계엄령은 해제가 되었으나, 가뭄이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판단하였고 4일 오후 4시, 연세대학교 서울 주요권 대학 총학생회장단 회의에 참석하여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등 타 학교의 의견은 어떠한지, 어떠한 행동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는 오랜 시간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 왔으나, 이는 어떠한 하나의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 아닐 뿐 학우 여러분의 일상이 맞닿아 있는 사회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윤석열 대통령 불법 비상계엄 규탄문을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총학생회의 의견만으로는 규탄문을 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4일 오후 8시경 임시 제1차 연석중앙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연석중앙운영위원회는 양 캠퍼스를 구성하는 각 단위의 대표자로서 자격을 가진 자들이 선출되어 구성된 기구입니다. 물론 총학생회가 모든 학우를 대변하는 기구로서 존재하긴 하나, 각 단위의 회장단이 모여 학생사회 내에서 총학생회보다 상위 기구로서 목소리를 낼 때 성균관대학교 학우들에 대한 대표성을 표명하기에 더욱 적절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개최된 임시 제1차 연석중앙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윤석열 대통령 불법 비상계엄 규탄문 작성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였고, 출석 21개 단위 중 찬성 21단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해당 가결을 바탕으로 12월 4일 총학생회 소통 창구에 규탄문을 업로드하였고 이후 총학생회뿐만 아니라 많은 단과대학, 학과 등 많은 학우 여러분이 대자보를 붙이고,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12월 7일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됨에 따라 학우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또다시 한번 목소리를 내야 함을 느꼈고, 윤석열 대통령 불법 계엄 규탄 및 퇴진 요구를 위한 전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 시국 선언문을 작성하고 게시하기 위해 12월 9일 오후 7시 10분경 임시 제2차 연석중앙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해당 회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불법 계엄 규탄 및 퇴진 요구를 위한 전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 시국 선언문]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였고, 출석 23단위 중 찬성 23단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시국과 해당 사안에 대한 시급성 때문에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연석 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 안건 상정 및 가결하여 규탄문을 쓰고 시국 선언문을 게시하였으나, 이제는 보다 실질적으로 많은 학우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필요성을 느꼈고 임시 제2차 연석중앙운영위원회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학생사회 시국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소집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석 23단위 중 찬성 23단위,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오늘의 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비상계엄령 선포에 따른 총학생회 대응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논의 안건

총학생회장: 다음으로 논의 안건입니다. 우선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상정한 논의 안건은 없습니다. 혹시 논의 안건을 상정할 대의원분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으신 것으로 파악하고 기타 안건 및 건의 사항, 기타 질의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기타 안건 및 건의 사항

총학생회장: 다음으로 기타 안건 및 질의 사항입니다.

첫 안건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학생사회 시국 대응 방안 논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저희는 연석중운을 통하여 안건을 의결해 왔고, 시국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 따라 보다 일반 학우분들과 가깝게 맞닿아 있는 대의원분들께 여러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해당 안건에 의견 있으신 분 계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와 관련하여 논의 혹은 발언을 하실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 단위, 이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아무도 말씀이 없으실까요? 이와 관련해서 사실 저와 부총학생회장님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기층단위 학생회 분들, 혹은 대의원분들한테 조금 더 많은 의견을 모으고자 이 자리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한을 갖지 않고 의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혹여나 단위별로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실제로 어느 정도 대응을 하신 단위도 있다고 알고 있고, 혹은 저희가 모르는 대응을 하셨든지, 대응 진행 계획이 있다든지 뭐 이러한 분들이 조금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것 관련해서 혹시라도 총학생회가 앞서서 말씀드려서 말씀드렸던 보고 안건과 관련한 논의 등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학과 3~4학년 대표 이자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래로 많은 기구들과 개인이 의사 표현을 해왔고, 또 총학생회 측에서도 의사 표현을 많이 해왔는데, 사실 이화여자대학교나 서울대학교 같은 다른 학교에서는 이미 총회를 개최해서 오늘 쉼기까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총학생회 측에서는 총회 개최에 대해서 계획이나 따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총학생회장: 해당 질문 감사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 총회라는 것이 총학생회칙에 의하면 제28조 총회 소집을 위해서는

첫째 전학대회 현재 재적의원 2/3 이상의 연서, 둘째 중앙운영위원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연서, 그리고 전 캠퍼스회 정회원 1/10 이상의 연서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물론 중앙운영위원회에서도 연서를 통해서 총회를 개최할 수는 있겠으나 총회의 경우 규탄문과 저희가 올렸던 공동선언문과 같이 조금 성격이 다르고 대내외적으로 보이는 범위가 넓은 행동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취했을 때 성균관대학교 전체의 입장으로 보일 것을 우려하여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연석 중앙운영위원회보다 더 많은 실질적인 학우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를 만들었음을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총학생회장: 추가로 답변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저희가 앞서 보고 안건에서 연석중운이라는 워딩을 사용했습니다. 우선 성균관대학교의 경우 여기 계신 모든 대의원분께서 아시겠지만 일단 캠퍼스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국 자체가 굉장히 주요한 사안이고 그렇다 보니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캠퍼스 측과의 의견 합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의장단 역시 규탄문, 공동 시국 선언문 같은 경우에 계속 합의를 거쳐 연석중운이라는 곳에서 의결을 진행해 왔습니다. 부총학생회장님께서 말한 것처럼 학생 총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와 관련해서 인사캠에서의 전체 학생 총회라도 개최하는 것이 가능한지 하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복합적인 취지를 고려했을 때 연석으로 논의할 필요성을 실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연석 총회도 저희가 일단 내부적으로 한 번씩은 검토했고, 이와 관련해서 연석중운 차원에서 단독으로 이 사안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굉장히 급하게 전학대회를 소집한 이유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어느 정도 있었고, 그리고 캠퍼스별로 따로 전학대회를 진행하여 여러분들의 의견을 일차적으로 수렴을 한 이후, 연석 중운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거쳐서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논의가 또 필요할 경우 이를 또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학우분께서 아시겠지만 내일 야당에서 탄핵 표결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비상시국이 계속해서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하게,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학우들을 대표하여 이러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까 관련된 논의를 계속해서 진행해 왔고, 이러한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모아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의 사항 있으신 분 계시면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문과학계열 김지유(참관인): 자과캠과 인사캠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우리 학교 환경인데, 저희는 명륜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자보 부착이나 학생단체들의 자유 발언과 같은 상황들만 가시적으로 볼 수만 있어서 지금 울전에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 수합 등에 대한 주목이 되고 있고 파악이 되고 있으신지 총학생회장단에게 묻고 싶습니다.

총학생회장: 해당 질문에 답변드리자면 아무래도 학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사캠에서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것들을 학우들이 표명하셨다는 것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과캠의 경우에는 학우님께서 말씀 주신 것과 같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해서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점에 자과캠에서도 동시에 전학대회를 진행하면서 해당 의견 관련하여 수렴을 받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총학생회장: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학우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명륜 캠퍼스의 경우 대자보라든지, SNS 활동을 통해서 여러 학우분께서 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가시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으나, 이원화된 캠퍼스의 특성상 자과캠 학우들의 의견, 또는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명륜 캠퍼스에서 충분히 인지를 못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현 시각에도 자과캠에서 전학대회가 열리는 만큼 거기서도 여러 논의가 오갈 것이고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추후 또다시 논의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예정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인문과학계열 김지유(참관인): 빠르고 적극적인 대응 부탁드립니다.

문헌정보학과 부학생회장 이지은: 사실 2차 탄핵안 표결이 내일 오후 5시라서 말씀해 주신 학생총회 소집이나 이런 것들이 탄핵안 표결 직전에 진행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탄핵안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는 진행된 후에 저희가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탄핵이 가결되거나 부결되는 결과와 상관없이, 특히 가결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규탄문이 아니라 그 이후에 탄핵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그런 각 부서나 다른 것에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 학생사회 기구라고 생각하는데, 탄핵 투표 결과에 따라 대응 방안을 생각해 두신 바가 있으신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총학생회장: 우선 저희가 아까부터 발언한 내용은 그만큼 이러한 시국이 빠르게 변화함을 강조하기 위함이지 어떤 특정한 결과, 어떤 행동을 정해두고 나서 대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현 시국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가로 목소리를 내야 하는 부분이 생긴다면 저희 역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헌정보학과 부학생회장 이지은: 개인적인 의견은 논의하기 위한 논의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말씀드리자면 만약 탄핵이 가결된

다고 하더라도 학생사회에서는 적극적으로 관련자로 거론되는 그런 청문회에서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총학생회장: 우선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추후 회의체가 다시 개최되고 나면 학우님께서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리더학부 1~2학년 대표 이경민: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답변을 통해서 이제 학생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석 위원회에서 가결하는 방식으로 학생총회에 대해 대응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학생총회에 대한 개인들의 의견 수렴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부총학생회장: 사실상 그런 의견 수렴이나 과정에서 저희가 평소에 사용하는 소통 창구, 구글폼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어려움도 있을뿐더러, 저희가 하고자 하는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얼굴을 맞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의견을 개진해 주심에 따라 참고하여 추후 중운이나 연석 중운에서 이야기를 논할 예정이었습니다.

총학생회장: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총회 관련해서 몇 분이 의견을 주셔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총회 제외 다른 기구들은 모두 각 단위의 대표성을 띠는 중운이나 연석 중운에서 의결 혹은 논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각 단위의 가장 상위 대표자께서 모이는 기구인 만큼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보완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중운에서 단과대학 혹은 학부뿐만 아니라 여기 학생회장분들, 또 학년 대표분들의 의견을 또한 수렴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서 안전과 관련해서 의견을 얻고자 이 자리를 열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치외교학과 학생회장 고예희: 타 학교 사례를 보면 교수님들도 학생들 시국선언이나 총회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저희 과도 그렇고 다른 과도 그렇고 교수님과의 단절이 어느 정도 느껴진다고 생각해서 혹시 학생들과의 전체 총회를 해서 시국선언이나 자유발언을 한다면 교수님과의 협력이나 아니면 참여까지도 고려하고 계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부총학생회장: 말씀해 주신 바를 생각해 봤을 때는 총회에 교수님들을 모시고 의견을 듣는 것 또한 충분히 좋은 방향성이라고 생각이 드나, 이 사안 또한 총학생회 내에서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학우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추후 논의 진행할 때도 참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회장 천예서: 우리 학교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온라인상에 시국 선언이나 그런 온라인 활동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응했다고 생각하는데요, 타 학교 같은 사례를 보면 서울대나 이화여대 등 오프라인으로 궤기를 진행하던가 가시적인 스탠스를 많이 볼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도 혹시 오프라인으로, 대외적이고 가시적으로 이러한 시국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보일만한 활동들을 하실 계획인지, 그게 빠르게 될 수 있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부총학생회장: 제가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총회나 이런 부분들은 규탄문과 공동선언문과 달리 대내외적으로 보이는 범위가 넓다고도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점을 저희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아니고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지만, 이러한 행동들을 우리 총학생회 독단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균관대학교 전체의 입장으로 보일 것을 우려하여 중운 또는 연석 중운에서 보다 조금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조금 더 일반 학우들과 맞닿아 있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자리에서 학우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총회라는 것이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회칙상 캠퍼스 회의 정회원 1/5 이상 출석이 되어야 개최됨이 회칙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사캠에서만 2,000명이 넘어야 개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외에도 안전상의 문제,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이러한 총회와 같은 회의가 열리지 않았던 만큼 총학생회 입장만을 바탕으로 개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서 학우 여러분들의 의견, 그리고 또 이러한 부분들에 관한 내용을 활발히 말씀해 주시면 추후 검토를 통해서 좀 더 활발한 논의 진행하도록 논의하겠습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회장 천예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려도 될까요? 논의하고 전달해 주신다고 해주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시국에서는 빠른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혹시 추가적인 논의가 언제쯤 이루어져서 언제쯤 이런 것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부총학생회장: 저희도 이러한 시국 속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해당 사안에 대한 시급성이라고 판단하였고, 해서 전체 학생

총회, 전학대회를 열기까지는 여러분들의 대의원 명단을 수집하고, 출결 확인을 통한 또한 개회 과정에서의 절차상 때문에 어느 정도 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차원에서는 중운이 열리지 않는 시기, 그리고 연석 중운이 원래 열리지 않는 시기에 임시 제1차, 제2차 중운 또는 연석 중운을 통해서 최대한 빠른 논의를 이어 나가고자 하였고,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현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급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저희가 앞서 진행해 왔던 연석 중운 또는 중운에서 조금 더 활발히 논의한 이후 여러분들이 계시는 단운이라든지 좀 더 다른 방향으로 학우 여러분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학생회장: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총회라고 하면 정말 모든 학우분이 오셔서 의견을 개진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점을 모두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몇 분께서 총회와 관련해서 언급을 해주시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혹시 저희가 지금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 자리를 소집한 만큼 어느 정도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의사가 있으신 대의원분들이 계실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간단하게 의견을 받아보고 싶어서 해당 발언 드렸고, 총회와 관련해서 의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의견 파악 정도를 어느 정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 부담 없이 거수하던 아니면 어느 정도 의견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성 측 거수)

총학생회장: 혹시 거수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학동양학과 3~4학년 대표 대리인 이원호: 혹시 거수라 하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찬성인지 반대인지?

총학생회장: 아닙니다. 단순히 어느 정도 파악을 해보고자, 사실 특정 부분에 대해서 계속 표현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회장 천예서: 저희가 지금 학생 총회에 대해서 의사를 밝히는 사람들이 거수하면 되는 것일까요?

부총학생회장: 네, 전체학생총회 개회에 찬성하시는 분들 거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거수)

총학생회장: 네, 손 내려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 절반분들 정도 필요성을 인지하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관련 부분 관련해서 또 자과캠과 논의 이후 다음에 안건으로 상정할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반대 의견이 있으실까요?

정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러한 내용들 혹은 시국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해당 자리를 소집한 만큼 여러분들께서 자유로이 발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학과 김경민(참관인): 저는 우선 이번 12월 3일 계엄 사태가 명백히 위험적이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그러한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계엄 선포가 합헌적이었다던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것이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했으며, 따라서 학생사회에서 이에 대한 시국선언 정도는, 탄핵에 찬성하지 않든, 찬성하든 간에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솔직히 이걸 저희가 총학생회를 열거나 공식적인 시국선언을 하는 데 이렇게 오랜 시간을 써야 할 이유를 저로서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총학회장단 분들은 부디 말씀하셨다시피 이 시국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든 않든 간에 이 민주주의가 위협당하고 있는 위태로운 시국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국가적 위협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여 주시고, 인지하고 계시기를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껏 발언하신 다른 분들의 논조와 같이 총학생회의 가능한 빠른 행동을 바랍니다.

총학생회장: 한 가지 여쭙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참관인 자격으로 오셨다 보니까 이제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해주셨는데, 학우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행동은 어떤 행동을 의미하시는 건지 여쭙볼 수 있을까요?

사학과 20학번 김경민(참관인): 예를 들면 저는 우선 대자보를 넘어선 이대나 서울대와 같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금잔디 광장에서 시국선언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차라리 혜화역에 나가서 다 같이 이 민주주의가 위협당하고 있는 위태로운 한국 사회에 대해서 자

유 발언을 한다든지 이러한 발상이 떠오릅니다.

총학생회장: 일단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쉼기 같은 부분들은 조금은 어느 정도 고려할 대상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른 분들께서도 예시를 들어주셨던 각 대학과의 연합을 통한 쉼기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어느 정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있었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보았는데, 아무래도 모든 집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들이 다 모여서 진행하는 만큼, 우선 저희가 가장 먼저 고려한 것은 참여하는 경우 책임 주체가 총학생회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규모의 인원이 몰리는 시위 같은 경우에는 안전상의 문제부터 시작하여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러한 시위가 진행되는 만큼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참가할 수 있을지 논의를 거쳤고, 일단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금 더 듣고 판단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학우님께서 주신 의견 한 번 다시 어느 정도 인지를 하였고 이와 관련해서도 필요성이 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이 되면 한번 또 논의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총학생회장: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이러한 시국 선언문, 규탄문을 제외한 행동에 관해서 왜 그렇게까지 오랜 시간이 왜 걸리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신 바를 통해서, 저희 또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가장 시급성이라 생각하였고, 해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열리지 않는 시기에 중운을 임시로 개최하고 연석 중운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논의를 빠르고 신속하게 이어가고자 한 점, 그리고 여러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전학대회에서 나왔던 논의를 바탕으로 더 신속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학과 조성현(참관인): 일단 이 계엄 사태가 사실 진정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물론 계엄령은 해제가 되었지만,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아직도 대통령직을 가지고 있고, 어제 담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30분간의 담화에서 완전히 별 이상한 소리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평가하기에는 사실 제각각이긴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뭐 온전치 못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이 받아들일 거로 생각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담화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아니면 탄핵이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1차 탄핵에서 우리가 이제 부결을 맞이하였는데 그런 탄핵 부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한다든지, 아니면 좀 적극적으로 탄핵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학생사회가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등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내실 생각은 없으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부총학생회장: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여러 시국이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속에서 총학생회, 그리고 학생사회에 요구되는 사안이 굉장히 다양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12/7 탄핵안 표결이 무산됨에 따라 저희 또한 다시 한번 목소리를 내야 함을 느꼈고, 해서 공동 시국 선언문을 작성하여 게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는 현재 시국 상황이 예측할 수 없고 너무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 선에서 최대한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을 취해가고 있으며 말씀해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조금 더 활발하고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해 나가고 대처할 수 있는 총학생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학동양학과 3~4학년 대표 대리인 이원호: 우선 중운을 직접 겪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학우들의 의견을 한데 모으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답을 잘 하지 않는 학우들도 있고, 학우들의 의견을 한데 모아 표명하는 것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총학생회 분들 측에서도 큰 노력을 기울이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학우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은 빠른 시국 변화에 대해 대응이 필요한 만큼, 의견을 모으는 방법을 건의드리고 싶은데요, 이것도 전학대회로 학우분들의 의견을 모아 듣는 것도 좋지만, 출석에 걸리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학교가 처해 있는 기말고사 때문에 모이기 쉽지 않은 만큼, 단과대 학생회장들에게 단과대학 학우들의 의견을 한데 모아서 중운 시간에 같이 표명한다든지, 아니면 댓글이라던가 간단한 방식으로 모아 표명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조금이라도 빠르게 의견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총학생회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해당 부분 검토해 보고 다음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배상영: 앞서 발언해 준 다른 대표자분들과 다른 말을 하고 싶은데, 사실 총회라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활동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성대 전체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띠고 있는가, 둘째로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캠퍼스가 이원화되어 있는 성균관대 특성상 인사캠 전체의 몇 분의 몇 분이 참여한다 해도 그렇게 총회를 연다고 해서 그것이 성대 전체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차라리 연석 중운 같은 걸 통해서 하는 것이 더 대표성을 띠는데 쉽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더불어 가시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뭐 혜화역에서 뭐 어떤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는 등의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아무런 고려도 없이 다만 빠른 대처를 원한다, 가시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이거는 조금 현실성과는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지금 학생회 출범 이후 각 총학, 단과대, 그리고 과 학생회 출범 이후 한 달이 안 되었는데 연석 중운이 두 번 열렸고, 전학대회가 한 번 열렸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빠른 게 가능할지 저는 조금 의문이 들어서 조금 더 현실성을 생각했을 때는 총회 개회에는 반대 의견을 한번 말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총학생회장: 말씀해 주신 부분 우리 총학생회에서도 계속해서 고민하는 지점이었고, 우리 학교 특성상 대표성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총학생회에서 계속 짚어보고, 대표성을 고민해 왔는데 그 부분에 관해 발언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이러한 발언들과 같이 정말 자신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의견들을 모아 조금 더 진지한 논의를 이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철학과 부학생회장 김세린: 앞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 우리 학교가 이원화 캠퍼스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이게 시행이 될 수 있으며 모든 학생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느냐는 반대 말씀 주셨는데, 우선 어제 제가 알기로는 경희대가 국제캠과 서울캠 양 캠퍼스 모두에서 이미 학생총회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실성은 이미 검증된 것 같고, 또 학생총회는 전체 학생의 1/10 이상이 참석해야 개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총학생회 측에서 학생총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1/10 이상이 모였다면 저는 이미 이게 전체 캠퍼스 학생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 있겠지만 더 빠르게 학생 총회 개최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총학생회장: 말씀해 주신 부분 감사드리며, 충분히 고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학생회장: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총회 같은 경우에는 1/10이 아니라 1/5입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가 조금이라도 고민이 더 많이 되는 지점이기도 했는데요, 인사캠에서만 2,000명 넘게, 자과캠까지 합치게 되면 3,600명이 넘는 학우분들이 오셔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가 계속해서 조금 검토를 많이 하고 있으나 이런 부분들이 고민되는 지점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학과 학생회장 신지후: 앞서 의견이 대표성이 없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문제는 아무래도 의견이 대립하는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좀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할 필요가 있고, 총회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대체할 안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소규모라도 모일 수 있는 자리가 만들려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총학생회장: 저희가 아까 보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성균관대학교는 지금까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 왔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또한 이러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이 하나의 정당, 정치를 지지하지 않는 것일 뿐 학우 여러분들이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해 좌시하겠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지금 여러 학우분의 의견이 조금씩 갈리는 부분, 또 이러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인지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많은 학우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바로 의결을 진행하거나 여러분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자 함을 아니니 편하게 발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행정학과 학생회장 변호영: 저는 지금 저희가 시급성에 초점을 맞춰서 오히려 다양성에 대한 시각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합니다. 저는 더 이상 총학생회 주도로 규탄문을 작성하고 시국 선언문을 쓰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문제는 지금 찬반으로 나뉘지만,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고 학내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를 주장하는 학우들도 분명 저희 안에 존재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의견이 지금 정확하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대표자 명의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총학생회장님은 대표해서 앉으시고 단과대학 학생회장님들은 단과대를 대표해서 앉아계시고 저는 학과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저희가 저희 명의로 학생회 인스타 계정에 올리는 규탄문들은 대외적으로 저희가 속한 단위에 있는 학생 전체의 의견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올린 의견에 대해서는 찬성의 입장으로 올린 규탄문이 많은 것이 맞지 않습니까? 반대를 주장하는 학생들도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그 학생들은 그러면 성균관대학교 학생이 아닌 것입니까? 총회를 연다고 하더라도 분명 반대 의견이 나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찬성 99%가 나오고 반대 1%가 나옵니다. 나와서 더 이상 지금 현 시국에 대해서 다른 조치를 하거나 규탄문을 작성하거나 시위한다고 했을 때, 1%의 반대 의견을 내는 학생들의 의견을 저희가 무시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총회를 열거나 또 규탄문을 작성하거나 시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학생회장: 해당 부분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사실 전학대회 운영 세칙상 토의가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해서 제 의장 직권으로 지금 한 시간 가까이 토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선 학우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까지 듣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선 학우님께서 개진하신 의견도 저희 측에서 확인하였고, 많은 학우분께서 시급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저희가 시급성에 약간은 쫓기듯이 하다 보면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해서 12월 3일~12월 4일부로 계속해서 이런 것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혹시라도 자과캠 측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사캠의 이런 논의들이 많이 오갔다는 것을 모두 전달해 드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합의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각 단위에서 혹시라도 앞서서 기타 안건을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단위별로 혹시 시국 대응 관련해서 계획 중이신 단위가 있으신지 물어보고자 하는데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각 단위에서 먼저 의견을 개진하고 학우분들의 의견을 모으고자 추가적인 조치를 단위별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총학생회 차원에서 막을 계획은 없으니 학우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것을 준비하고 있고, 학생사회가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액션을 취하려고 하고 있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일반 학우분들께서 알아주라고 계속해서 홍보를 해드리는 것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학우분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이런 의견 하나하나 다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학생회장: 두 분만 더 받고 끝내겠습니다.

부총학생회장: 초록색 줄무늬 옷 입으신 분까지 세 분 정도 의견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과대학 학생회장 정태건: 시급성에 맞춰 다양성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저는 다양성도 물론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일단 시급성이 급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학내에서 어떤 목소리가 여러 가지 나온다고 했을 때 모든 의견을 퍼센트에 맞춰서 총학생회 또는 학생사회가 대표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 기타 안건 두 번째에 등록금 인상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제 학내 구성원 한 88%의 등록금을 동결하자는 의견, 12%의 등록금을 인상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 있을 때 총학생회가 88%의 의견으로 등록금을 동결하자고 외치는 동시에 12%의 의견으로 등록금을 인상하자고 외칠 수 없는 상황이지요. 총학생회는, 학생사회는 선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속되고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그것을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문과대학 내부에서는 물론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탄핵 찬성, 혹은 학생회에서 입장을 내주길 바라는 학생이 월등히 많습니다. 이것이 정말 50대50으로 갈리지 않는 이상, 학생회에 소속된 대표자분들께서는 입장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학생총회라던가 학생사회에서의 대응이 우리 대표자들 사이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총학은 물론, 기총단위 대표자분들도 대응을 열심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학생총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총회에 저는 중운에서 의결하면 이것에 찬성을 던질 예정이지만, 지금 학생 총회를 논의하기에는 상황상 최고 의결 기구, 학생 총회가 최고 의결 기구이잖아요? 그다음 의결 기구가 전학대회인데 전학대회로 충분히 입장 정리가 가능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해서 학생 총회를 어떠한 것을 의결하기 위해 소집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을 모아 자유 발언의 장을 총학생회 측에서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입장이고요, 또 학생회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총학생회장단도 그렇고 많은 기총단위 대표자분들께서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학생회는 당연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그 중립이라는 것이 결과적 중립이라기보다는 절차적인 중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떤 의견을 냈는데, 뭐 등록금 인상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마침, 동결하자는 입장을 냈는데, 마침 국민의힘은 등록금을 인상하자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민주당이 등록금을 동결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면, 저희가 민주당을 지지하게 되는 것은 아니죠. 내부적으로 전학대회, 혹은 학생 총회 혹은 기총단위 회의를 통해서 등록금을 동결하는 것이 좋겠다, 어떤 정당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학생들의 의견이 모아졌다면, 절차적으로 중립이었다면, 우리가 어떤 의견을 내든, 그것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던 아니던, 충분히 학생회에서 낼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사고를 다들 기억하고 게실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때도 성균관대에 소속된 피해자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는 물론이고, 대다수의 학교에서 특히 총학생회, 혹은 학생회 단위에서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당연히 정치적 중립을 숙고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이번 윤석열 탄핵과 관련된 방안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학생들이 모여서 생각했을 때 이것이 옳다, 혹은 그르다는 생각이 충분히 모인다면, 이것이 정치적 표현이던, 혹은 여야 정쟁 대상이든 상관없이 총학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충분히 고려하셔서 현명히 결정, 중운에서도 현명한 결정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니다.

총학생회장: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전학대회를 소집한 이유도 이런 자유로운 토론의 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자리를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생각에 대해 들을 수 있어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로 말씀하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마지막으로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학생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문과대학 학생회장님과 줄무늬 옷 입으신 분이 계속 손을 들고 계셔서 먼저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경영대학 4반 반장 이상현: 우선 항상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쭙보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균관대 내에서 이원화 캠퍼스이기 때문에 의견 합치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와 동시에 시국이 상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두 가지 답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저는 시국이 조금 더 빠르게 변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견 합치도 중요하지만, 인사캠 내에서 따로 캠퍼스명을 기재하여 특정한 활동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보고 싶고요,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에 대해서 캠퍼스명을 기재하여 이원적으로 합치된, 통일된 의견 표명과 함께 인사캠 내의 독자적인 활동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부총학생회장: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시급성을 고려하였을 때 이원화된 캠퍼스임에도 불구하고 한 캠퍼스 안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한 논의를 거치고 그러한 활동을 하겠다는 안건을 가지고 이 자리에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학우 여러분께서 의견을 내주시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은 의견을 내주시고 논의가 오간 바를 통해 학우 여러분의 의견도 충분히 참고하여 이 전학대회가 마무리되고 난 후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학생회장: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연석이라는 것이 자과캠과의 의견 합치를 계속해서 강조했던 이유 중 하나는 저희는 이것이 옳고 그름의 상황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 학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사캠에서 단독으로 뭔가를 진행하게 될 경우에, 물론 조금이라도 더 빠른 의견 합치를 통해서 추가적인 액션을 취할 수 있겠으나 이것이 자칫 인사캠은 옳다고 생각하나, 자과캠을 그르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또 특히나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 또는 성균관대학교라든지 공식적으로 학교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만큼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의견 합치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점에는 어느 정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말씀해 주신 부분 한 번 더 자과캠 측과 논의를 해보고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정치외교학과 오경민(참관인): 회의를 보면서 느낀 건데, 여기 대표자분들 다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정치적인 대표자가 아니라 학사 행정의 대표자로서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비판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이 주저되신다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외부인 입장에서 볼때는. 그러다 보니까 학생 총회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가, 학생총회는 현실적으로 여건이 안 되니까 중운 이야기가 나왔는데, 몇 분은 중운이 학생들의 의견을 모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흐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쭙보고 싶은 것은 지금 굉장히 상황이 급하고, 중대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학교 학칙을 보면 학생총회 개최 관련하여 10조에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학생 연서나 중운이나 이런 것을 모은 이후에 10조의 개최에 대해서 1/5 이상이 출석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총회는 국가적 재난 등의 사유로~ (관련 회칙) 온라인 등의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이 국가적 재난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학생 총회를 주저하시는 이유가 연서라든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개최 자체가 어렵다고 보시는 거라면 온라인 개최를 의장께서 고려해 주시면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중운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학생들의 연서라든지의 움직임이 벌어지기 이전에 그런 의결이 있었을 때 의장께서 상황이 굉장히 급하고 중대함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개시하는 것을 고려해 보겠다, 이 정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케이 해주셔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보고 싶다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총학생회장: 질문해 주신 부분까지 답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총학생회칙을 보면 관행적으로 관례를 따라가기도 합니다. 특히나 국가적 재난 말씀해 주셨는데, 회칙 조항이 신설된 것은 사실 물리적으로 모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대비하여 만들어진 회칙 조항입니다. 2020~2021년도에 물리적으로 국가에서 이런 거대한 모임을 막아서 저희가 모이지 못한 특수성 때문에 그런 부분만 한정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저희도 국가적 재난과 관련된 부분이 우리가 과연 연석으로 전체 총회를 열던 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봤을 때 저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정치외교학과 오경민(참관인): 죄송한데,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 입법의 의도, 원칙 중요한 것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서 행동했을 때,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뭐 국가적인 일에서는 현재에서 판단한다던가 이런 게 있는데, 학내에서 이 원칙을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적용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나아가서 여기 국가적 재난 등의 사유라고 하는 것은 관행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판단에 있어서 어디 존재하는지도 모를 누군가가 결정해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의장님이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의장님 독단적인 판단이 문제가 된다면, 총학생회 위원들, 운영위원회 위원들, 더 나아가 전학대회 의원들이 함께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장님께서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실 수 없는지 한 번 더 여쭙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학생회장: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현재는 시급한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더욱이 다르게 생각해 봤을 때 대의적으로 필요하고 모두의 의견을 표명해야 하는 자리라고 하면 오프라인으로 학우 여러분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총학생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해서 이 과정을 진행하기에는 앞서 말한 고려 부분들이 있지만,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의견 내주신 바를 충분히 고려하여서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학생회장: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총학생회칙 제2조에 보면 이 회칙의 모든 유권 해석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해서 학우분께서 의장의 직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불가능하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학우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예 이해가 안 되지 않는 바가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것들은 회칙에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는 점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총학생회장: 다음 기타 안건은 '등록금 인상 대응을 위한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소집안'입니다.

현재 본교는 12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해 왔습니다. 학교 본부는 오르는 연구비용, 인건비, 운영비용 등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고, 지속된 등록금 동결은 학교의 경쟁력을 저해한다며 등록금 인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국 4년제 대학 193개교 중 2023년도에는 17곳, 2024년도에는 26곳의 대학이 학부 등록금을 인상하며 등록금 인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는데요, 지금까지 대부분 대학에서 10년 이상 등록금을 동결해 왔던 것은 등록금 동결 혹은 인하 시 국가에서 대학에 지원해 주는 국가장학금 II 유형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정부의 국가장학금 수령보다 등록금 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더 커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등록금 인상에 대한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 만큼, 학우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또한 추가로 원래는 관행상 해가 넘어가서 등록금 관련 심의를 하는데요, 학교 측에서 등록금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등심위에서 원활히 합의되지 않을 경우, 방학 중으로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기타 안건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 대의원분들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바탕으로 학우들의 의견을 더욱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 측과의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자 합니다.

해당 안건에 혹시라도 의견 있으신 분 계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 말씀드리자면 전학대회는 소집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단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전학대회를 따로 소집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단위요구안이라는 것을 통해 총학생회, 중운에 소속된 학생회 분들과 학교 본부 측과 예산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있어서 혹시라도 학우분들께서 혹은 학과를 대표하시는 분들께서 이러한 건과 관련하여 논의를 개진하고 싶으시면 각 단위에 있는 단위위원장들인 중운 학생회장들에게 의견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폐회 선언

총학생회장: 긴 시간 동안 전학대회에 참석해 주신 대의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생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모든 위원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언론사 분들은 이제 안 오셔서, 집행위원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2024학년도 임시 제1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19시 28분 기준으로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총학생회장: 출입구 쪽에 계시는 장애 학우분께서 먼저 나가실 수 있도록 잠시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